

보도시점 2024. 1. 18.(목) 11:00 배포 2024. 1. 18.(목) 09:00  
1. 19.(금) 조간

## <'24년 농식품부 민생정책 돋보기>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'천원의 아침밥' 전년 대비 2배 수준 확대 지원

- 고물가 시대에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인원을 작년 233만명분에서 450만명분으로 대폭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청년층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「천원의 아침밥」 사업을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.

### <2024년 '천원의 아침밥' 예산 확대 내역>

| 구 분  | '23년     | '24년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원규모 | 233만명분   | <b>450만명분(+217)</b>         |
| 사업예산 | 2,501백만원 | <b>4,846백만원 (+2,345백만원)</b> |

이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\*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천원을,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이 1천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. 2022년 49만명분에서 2023년 233만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, 올해는 450만명분 규모로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하였다.

\* 아침식사 결식률('22) : (10~18세) 33.1%, **(19~29) 59.2**, (30~39) 48.5, (40~49) 36.4, (50~59) 24.1

또한,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·도 중 15개 시·도\*에서도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난 35억원 수준\*\*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\* 서울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  
\*\* 학생별 1~2천원 수준 지원(2천원: 충남, 제주, 1천원: 나머지 지자체)

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「천원의 아침밥」 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이다. 2023년 설문조사(140개교, 5,711명) 결과, 이 사업을 통해 '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'는 응답자 비율은 90.4%였고, '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되었다'는 의견도 90.5%에 달했다.


농식품부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사업 관리와 홍보도 강화하기로 하였다. 부실 식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식단 구성 현장점검, 학교·학생 간담회 개최, 설문조사 등 현장 밀착형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. 또한, 청년층에서 아침밥 먹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이다.

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“이번 사업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, 제대로 된 따뜻한 아침 식사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”이라고 하면서, “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통해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### 붙임 천원의 아침밥 전년의 2배 수준 확대 인포그래픽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식량정책관실<br>전략작물육성팀 | 책임자 | 과 장 | 조은지 (044-201-2911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조수영 (044-201-2914) |





## 청년층에 건강한 식생활 확산과 쌀 소비문화 형성

# 천원의 아침밥 전년의 2배 수준 확대



### ‘천원의 아침밥’으로 건강한 식사 제공

- **사업내용** 아침식사 결식률\*이 높은 청년층에 학교와 정부 등이 식비 공동지원

\* 아침식사 결식률('22/19~29세) : 59.2%

- **지원방법** 농식품부 1천 원+학생 1천원+학교부담금 자율+지자체 자율(1식기준)



### 사업 규모 및 예산 확대

- 고물가 시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 절감

- **지원규모** 233만명분 → 450만명분 / **예산** 2,501백만원 → 4,846백만원



### 지자체 참여 확대로 학교 재정부담 완화

- 전국 15개 시·도에서 35억원 수준(전년의 2배) 추가 지원계획 수립